

명문고 졸업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 실제 존재하는가?*

남 기 곤**

논문초록

명문고 출신자들은 우수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선배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해라도 노동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명문고에 진학할 경우 과연 이러한 유리함이 발생하는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고교평준화 제도라는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이용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노동시장 생애경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교평준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기준의 과거 명문고에 진학했던 사람은 비명문고에 진학했던 사람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높은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직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고임금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명문고 출신자가 보유하고 있는 보다 양질의 사회적 자본이 노동시장에서 실제 유의한 임금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 주제어: 명문고, 임금, 고교평준화 제도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J3, I2

투고 일자: 2012. 1. 2. 심사 및 수정 일자: 2012. 1. 15. 게재 확정 일자: 2012. 2. 19.

* 이 논문은 2010년도 한밭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 논문의 초고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이병희 박사, 장수명 교수, 전재식 박사, 그리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고등학교 학군 자료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신 정상돈 동문과 조정재 박사께도 감사드린다.

**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mail: nkgon@hanbat.ac.kr

I. 문제제기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평균적으로 노동시장의 성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 보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빠르게 승진하며, 높은 소득을 받는 경우가 많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소위 ‘고교평준화 제도’에 의해 고등학교 간 차별성이 크게 축소되긴 하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출신 고등학교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상의 차이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과학고나 외고와 같은 특목고 출신자,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고 출신자, 그리고 서울 강남지역과 같은 부유층 밀집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들은 상대적으로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확률이 높고, 노동시장에서 보다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곤 한다.

왜 그럴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명문고 출신자가 그 외 고등학교 출신자에 비해 능력 자체가 뛰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가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에 의해 입학이 이루어진다면, 원래부터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명문고에 진학하게 된다. 또한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학습을 하게 되면 서로 간의 경쟁과 협조를 통해 ‘동료집단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능력이 보다 빠르게 향상될 수 있다. 이들 집단의 부모나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또한 명문고 학생들의 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명문고 출신자가 보다 높은 ‘인적자본’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명문고 출신자들은 우수한 동료 및 선후배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해라도 노동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학연이 중요시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출신 학교가 어디인가가 중요한 ‘사회적 자본’을 구성한다¹⁾ (김선엽, 1993; 최섯별, 2001). 직장의 채용과 승진 과정 등에서 동일한 고등학교 출신자를 우대하려는 경향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보다 우수한 구성원의 비율이 높은 명문고 출신자는 유사한 인적자본을 가진 비명문고 출신자에 비해 노동시장의 성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만약 명문고 출신자와 비명문고 출신자 간의 노동시장 성과 상의 차이에 인적자본량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량의 차이

1) 2000년대 들어 한국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김태준 외(2009) 참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과연 이러한 차이가 사회적으로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 시정조치’의 도입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명문고 출신자의 우수한 노동시장 성과 중 사회적 자본에 기인하는 부분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인지는 중요한 사회적 논점이 될 수 있다.²⁾

그동안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직무연계모형(job matching model)’에 근거하여 사회적 자본이 임금과 같은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가 설명되어 왔다(Montgomery, 1991; Cahuc and Fontaine, 2009; Calvo-Armengol and Zenou, 2005). 실증적으로는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직업을 찾는 경우 노동시장 성과가 높아지는지를 분석하거나,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적 자본 양과 노동시장 성과 상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Montgomery, 1992; Flap and Boxman, 2001; Lai, Lin and Leung, 1998; Bartus, 2001; Mouw, 2003; Bayer, Ross and Topa, 2005). 외국의 경우 고등학교의 특성을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분석한 연구는 흔치 않은데, 미국에서 명문 사립고등학교 출신자들이 공립학교 출신자에 비해 문화적자본보다는 사회적 자본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일련의 보고가 존재한다(Zweigenhaft, 1992, 1993, 2009).

이 분야의 실증분석에서도 역시 중요한 문제는 ‘관측되지 않은 개인의 이질성’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회적 자본을 많이 보유한 사람의 임금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을 때, 과연 그 이유가 사회적 자본 그 자체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자본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인적자본량도 보다 많이 보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인지를 판별하기 어렵다. 본 논문의 주제인 명문고 출신 여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명문고 출신자는 우수한 선후배를 많이 보유함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질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개인의 인적자본 자체도 보다 우수할 가능성이 크다. 회귀분석을 통해 개인의 인적자본량과 관련이 있는 많은 변수들을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관측되지 않은 혹은 측정될 수 없는 변수들이 분석에서 누락되는 한, 사회적 자본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일치성’을 가질 수 없다.

2) 한국의 경우 고교평준화 정책이 실시된 이후 고등학교 학연의 중요성은 감소되었지만, 대학교 학연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Lee and Brinton, 1996). 명문고 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명문대 효과의 존재 여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외국의 몇몇 연구들에서는 도구변수를 사용하거나 혹은 패널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임금함수 추정시 사회적 자본 변수가 가지는 이와 같은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Dalattre and Sabatier, 2007; Xue, 2008).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분석은 항상 사용된 도구변수가 오차항과 상관성이 정말 존재하는 않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출신 고등학교의 특성과 같은 변수는 관측시간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값이 변화하지 않는 변수이기 때문에 패널분석의 고정효과 모델을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명문고 졸업이라는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고교평준화 제도라는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한다.³⁾ 1974년 서울과 부산지역에 처음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고교평준화 제도는 1996년 일부 지역에 선복수지원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동일한 학군 내 중학교 졸업자들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학군 내 고등학교에 무작위로 배정해 왔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간에 편차가 컸고, 동일한 학군 내에 기존의 명문고와 비명문고가 혼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학군을 통제할 경우 명문고에 입학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관련이 없는 우연적 현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평준화 제도 실시 이후에도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기준의) 명문고 졸업자들이 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면 이는 명문고가 가지는 장점, 즉 사회적 지위가 높은 선배 졸업자가 많다는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2009-2011년에 조사가 이루어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노동시장 생애경력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⁴⁾ 본 논문의 분석 결과, 고교평준화 제도 시행 이후에도 과거 명문고에 진학했던 사람은 비명문

3)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분석으로는 Nam and Sung(2009)이 있다. 이 논문은 1997년 서울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군을 통제할 때 사립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공립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보다 성적 향상 정도가 더 높은지를 분석하고 있다.

4) 논문이 완성되어 어느 한 세미나에서 초고를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본 논문과 문제의식이 유사한 Lee and Kang(2011)이라는 미출판 논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논문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양질의 선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교평준화 제도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본 논문과 동일하지만, 분석자료는 물론 분석대상과 분석방식, 명문고에 대한 정의, 학군을 통제하는 방식, 분석 결과에 대한 점검 방식 등이 서로 상이하다. 본 논문은 위의 논문과는 전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수행되었음을 밝혀둔다.

고에 진학했던 사람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높은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직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고임금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명문고 출신자가 보유하고 있는 보다 양질의 사회적 자본이 노동시장에서 실제 유의한 임금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제Ⅱ장에서는 한국의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명문고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다. 제Ⅲ장에서는 본 논문의 분석 방식과 이용하는 자료를 소개한다. 제Ⅳ장에서는 회귀분석 결과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점검 내용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이상의 분석 내용을 정리한다.

Ⅱ. 명문고의 정의

1. 고교평준화 제도의 변천 과정

한국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생을 학업 성적에 의해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군 별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을 추첨에 의해 각 학교에 배정하는 ‘고교평준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고등학교 입학 단계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이 제도는 1974년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인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다음 해인 1975년에는 그 다음으로 규모가 큰 도시인 대구, 인천, 광주에 확대 도입되었다(제1차 평준화 시기). 그 뒤 이 제도는 사립학교들의 반발과 일부 교육 단체들의 비판 등으로 인해 다른 도시로의 확대 시행이 지연되다가, 1979-81년 간 16개 도시에 추가로 확대 시행되었다(제2차 평준화 시기). 이후 1990-95년 사이 7개 도시가 평준화 제도를 해제하였고, 또 2000년대 들어서는 8개 도시가 새로 평준화 제도를 채택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⁵⁾

평준화 제도가 시행되는 도시는 통상 지리적 위치에 따라 몇 개의 학군으로 나누어진다. 자격시험이나 내신 성적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거주 지역

5) 각 지역별 평준화제도의 시행 과정 및 학군의 변화 과정은 〈부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혹은 출신 중학교의 위치에 따라 자신이 소속되는 학군이 배정되고, 해당 학군 내 어떤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지는 무작위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각 지역별로 학군 수는 차이가 있었다. 우선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인천과 광주, 그리고 2차 평준화 지역인 16개 도시에서는 그 지역에 소속된 모든 학교를 하나의 학군으로 편성하는 단일학군제가 실시되었다. 반면 규모가 큰 서울, 부산, 대구에서는 통학거리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지역을 몇 개의 학군으로 구분하여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 제도가 도입되었던 초기 시점에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는 기존 명문고들이 주로 도심에 집중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들 도심 지역을 공동학군으로 편성하여 거주지에 상관없이 이 공동학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몇 년간에 걸쳐 명문고들이 다른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과 병행하여 공동학군의 규모를 줄여 나가는 정책을 시행하여, 1980년 이후 모든 학생은 자신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학군에 소속된 고등학교에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구 지역의 경우 1970년대에는 단일학군을 유지하다가, 1980년 이후부터 복수학군제가 실시되었다.

이처럼 한국에서 고교평준화 제도는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된 1974년부터 1995년까지는 학군 내 학생의 무작위 배정이라는 기본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⁶⁾ 특히 1980년부터는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각 지역마다 학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⁷⁾ 따라서 1980-95년 사이에 이들 지역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만약 학군을 통제하여 동일한 학군 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비교한다면, (평준화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기준의) 명문고 입학생이 비명문고 입학생에 비해 본인의 능력의 측면이나 가정형편 등의 측면에서 질적으로 차별성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이처럼 한국의 고교평준화 제도는 동일한 학군 내에서 명문고와 비명문고에 학생들이 무작위로 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명문고 졸업 여부가 노동시장의 성과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분석 상의 실험 소재를 제공한다.

6) 1996년부터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이후 시기에는 고등학교의 특성에 따라 입학생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 선택권 제도의 시행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박숙경(1997) 참조.

7) <부표 1>에도 정리되어 있듯이 대구지역의 경우 1980-81년에는 2개의 학군, 1982-89년에는 4개의 학군, 1990년 이후에는 3개의 학군으로 운영되어 왔다. 창원지역의 경우 1981년에 마산에서 분리되어 단일 학군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같은 학군 내에서 고등학생의 배정이 완전히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어느 지역에서나 고등학생의 구체적인 배정 방식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는데, 고등학교 배정 시 학군 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이 이루어지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학생의 교통편의와 성적이 가급적 고려된다는 원칙은 발표되어 왔다.⁸⁾ 따라서 같은 학군 내에서도 명문고가 위치해 있는 인근 지역에 보다 능력이 우수한 혹은 보다 가정형편이 양호한 학생들이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면, 명문고 입학생과 비명문고 입학생 간의 질이 고등학교 입학단계부터 이미 서로 달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또한 학군 내의 고등학교 정원과 입학예정자 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조절학교를 두는 경우들이 있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다른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까지 이 학군 고등학교에 입학함으로써, 학군 내 무작위 배정 원칙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학군 내 학생들의 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든 조건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본 논문에서는 실제 학군을 통제하더라도 명문고와 비명문고 학생들의 질이 이미 입학 단계에서부터 차별적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군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을 하거나, 명문고와 비명문고 입학생 간의 인적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실시한다.

2. 명문고의 분류

고교평준화 제도가 실시되기 전인 197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고등학교들은 입학 시험 성적에 의해 학생들을 선발하여 왔고, 이로 인해 고등학교 체계는 명문고과 비명문고 사이의 구분이 매우 뚜렷한 서열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예컨대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72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였던 시기인 1975년의 경우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 수는 경기고 512명, 서울고 435명, 경북고 232명, 부산고 166명, 경남고 159명, 경북고 152명, 용산고 130명, 경기여고 129명, 광주일고 125명, 이화여고 102명 순이었다. 당시 서울대학교 입학생 수가 3200여명 수준이었고 전국 고등학교 수가 450여개였던 것을 감안하면, 2%에 해당하는 상위 10개 명문 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 입학생의 2/3 이상을 배출

8) 이러한 사실은 당시 신문 기사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향신문, 1981. 2. 20., 동아일보, 1984. 3. 5.

하였던 것이다(〈부표 2〉 참조).

당시의 고등학교 중 어떠한 학교를 명문고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고교평준화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서울대학교 등 유명 대학에 몇 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는지를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로 분류하기로 한다.

- ① FamousHigh_1: 서울대학교 합격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고등학교
- ② FamousHigh_2: 서울대학교 합격자 수가 20명을 초과하는 고등학교
- ③ FamousHigh_3: 일반 중소도시의 경우 주요 공립학교 + 여학교의 경우 서울대 외에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에 합격자를 배출하는 고등학교
- ④ FamousHigh_4: 그 외의 고등학교

자료는 당시 일간신문에서 대학 합격자 수에 관한 정보가 확인 가능했던 1972-1975년 4개년 동안의 서울대학교 합격자수 분포와 1973년 여자고등학교의 주요 대학 합격자수 분포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였다(〈부표 2〉와 〈부표 3〉). 물론 이 자료는 언론사의 취재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외의 연도에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당시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명문고를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 다음 〈표 1〉이다.⁹⁾

실제 분석에서 남자의 경우에는 이상의 네 가지 구분에 의해 고등학교를 분류한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분류에 포함되는 고등학교가 4개 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FamousHigh_1 - FamousHigh_3에 속하는 고등학교를 하나로 묶은 FamousHigh_123이라는 변수에 대해서만 분석하기로 한다.

9) 서울대학교 합격자 수가 100명 이상 혹은 20명 이상인 학교를 명문고로 정의하는 것은 본 논문의 자의적 기준이다. 하지만 어느 규모 이상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는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표 2〉에 제시된 서울대학교 합격자 수 그 자체를 연속변수로 활용하더라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표 1〉 평준화 이전 명문고

	남학교 또는 남녀공학	여학교
FamousHigh_1	경기고, 서울고, 경북고, 용산고, 중앙고, 경동고, 부산고, 경남고, 경북고, 광주일고, 대전고	경기여고, 이화여고
FamousHigh_2	서울사대부고, 동성고, 대광고, 배재고, 보성고, 신일고, 양정고, 중동고, 휘문고, 제물포고, 전주고, 춘천고, 청주고, 마산고, 광주고, 경북사대부고, 진주고	정신여고, 숙명여고
FamousHigh_3	성남서고, 수성고, 원주고, 천안중앙고, 군산고, 이리고, 목포고, 안동고, 제주일고	인천여고, 광주여고, 성남여고, 수원여고, 춘천여고, 원주여고, 청주여고, 천안여고, 군산여고, 이리여고, 목포여고, 안동여고, 마산여고, 진주여고, 제주중앙여고
		이대부고, 금란여고, 동덕여고, 무학여고, 배화여고, 수도여고, 성신여고, 숭의여고, 중앙여고, 진명여고, 창덕여고, 풍문여고, 계성여고, 부산여고, 경남여고, 경북여고, 전남여고, 대전여고, 전주여고

주: ‘FamousHigh_1’은 고교평준화 정책 이전인 1972-1975년 서울대학교 합격자 수가 100명 이상이었던 고등학교, ‘FamousHigh_2’는 20명 이상이었던 고등학교를 의미한다(〈부표2〉 참조). ‘FamousHigh_3’은 일반 중소도시의 경우 주요 공립학교 + 1973년 서울 주요대학에 합격자를 배출 하였던 여학교를 (〈부표3〉 참조) 포함하였다. 음영이 있는 학교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이다.

Ⅲ. 자료 및 분석모델

본 논문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적조사를 실시한 교육-노동시장 생애경력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이 자료는 1982년, 1992년, 2002년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2009년에 최초로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한 이후, 동일 개인에 대해 2010년 및 2011년에 추적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 중 1992년 졸업생과 2002년 졸업생에 대한 자료를 분석에 이용한다.¹⁰⁾

최초 1차 조사에서는 1992년 졸업생이 3,018명, 2002년 졸업생이 3,000명 조사

되었다. 이 중 고등학교 이름이 확인되는 2차 조사에 응한 사람 (각각 2,052명, 1,765명), 평준화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각각 1,156명, 949명),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 (각각 991명, 780명)으로 표본을 제한해 나갔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의 입학시기가 유사한 사람으로 분석을 한정하기 위해 1992년 졸업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입학시기가 1980-1985년인 사람을, 그리고 2002년 졸업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입학시기가 1990-1995년인 사람을 추출하였다.¹¹⁾ 그 결과 분석에 사용된 최종적인 표본 수는 1992년 졸업생의 경우 978명, 2002년 졸업생의 경우 776명이었다.

〈표 2〉 졸업계층별 명문고 졸업자의 지역별 분포

지역	1992년 졸업생			2002년 졸업생		
	명문고	비명문고	계	명문고	비명문고	계
서울	75 (36.2)	224 (29.1)	299 (30.6)	48 (41.7)	217 (32.8)	265 (34.1)
부산	11 (5.3)	66 (8.6)	77 (7.9)	6 (5.2)	80 (12.1)	86 (11.1)
대구	12 (5.8)	117 (15.2)	129 (13.2)	5 (4.3)	89 (13.5)	94 (12.1)
대전	14 (6.8)	55 (7.1)	69 (7.1)	7 (6.1)	45 (6.8)	52 (6.7)
인천	4 (1.9)	17 (2.2)	21 (2.1)	1 (0.9)	36 (5.4)	37 (4.8)
광주	17 (8.2)	82 (10.6)	99 (10.1)	10 (8.7)	47 (7.1)	57 (7.3)
경기	6 (2.9)	13 (1.7)	19 (1.9)	6 (5.2)	11 (1.7)	17 (2.2)
강원	17 (8.2)	17 (2.2)	34 (3.5)			
충북	6 (2.9)	16 (2.1)	22 (2.2)	5 (4.3)	16 (2.4)	21 (2.7)
충남	4 (1.9)	14 (1.8)	18 (1.8)	1 (0.9)	7 (1.1)	8 (1.0)
전북	12 (5.8)	66 (8.6)	78 (8.0)	13 (11.3)	64 (9.7)	77 (9.9)
전남	4 (1.9)	13 (1.7)	17 (1.7)			
경북	3 (1.4)	8 (1.0)	11 (1.1)			
경남	18 (8.7)	50 (6.5)	68 (7.0)	8 (7.0)	34 (5.1)	42 (5.4)
제주	4 (1.9)	13 (1.7)	17 (1.7)	5 (4.3)	15 (2.3)	20 (2.6)
계	207 (100.0)	771 (100.0)	978 (100.0)	115 (100.0)	661 (100.0)	776 (100.0)

주: 여기서 명문고는 ‘FamousHigh_123’ 기준임.

10) 1982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고교평준화 제도 시행 전에 고등학교를 입학한 사람과 그 후에 입학한 사람이 혼재되어 있고, 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던 1970년대 시기에는 학군이 해마다 바뀌어 일관된 분석을 실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1) 1980년 이전과 그 이후에 서울과 부산 지역 등의 학군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1980년대 이전에 고등학교를 입학한 사람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제외된 표본 수는 1992년 졸업생의 경우 13명이었다. 동일한 방식으로 고등학교 입학 시기를 통폐합에 따라 2002년 졸업생의 경우에는 4명의 표본이 탈락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각 지역별로 명문고 졸업자와 비명문고 졸업자의 표본수를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여기서 명문고는 FamousHigh_123 변수를 이용한 것이다. 표를 보면 1992년 졸업생과 2002년 졸업생 모두 각 지역별로 명문고 졸업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²⁾

본 논문의 분석에 사용하는 기본 모델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Ln Wage}_{tdi} = & \alpha + \beta \cdot X_i + \lambda \cdot \text{FamousHigh}_i + \Sigma \delta \cdot \text{YearHigh}_t \\ & + \Sigma \theta \cdot \text{SDistrict}_d + \varepsilon_i \end{aligned} \quad (1)$$

종속변수는 1차 조사에서 얻어진 현직장에서의 (세전)연간총소득의 로그값이다. 기본적인 모델에서는 고등학교 입학시기 t 에 대한 고정효과와 (YearHigh_t) 자신이 소속된 지역의 고등학교 학군 d 에 대한 고정효과를 (SDistrict_d) 통제한 상태에서, 명문고 졸업이 (FamousHigh)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다.¹³⁾ 남자의 경우 명문고는 네 가지로 분류된 지표를 사용하는 반면 (FamousHigh_1 - FamousHigh_3), 여자의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된 지표를 이용한다(FamousHigh_{123}).

모델에 따라 개인 i 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 X_i 를 추가하여 분석한다. 우선 자료의 제약 상 종속변수로 시간당임금이 아닌 연간총소득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모델에서는 현 직장에 입사한 첫해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그 외 독립변수로는 개인의 능력이나 가정환경을 나타내는 변수들(유명 대학 졸업 여부, 대학 졸업 학점, 대학원 진학 여부, IQ, 아버지의 학력)과 현 직장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상용직 여부, 대기업 여부, 서울소재 직장 여부, 과장 이상 직급 여부)이 사용된다.¹⁴⁾ 각 변수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 <표 3>에 정리

12) 2002년 대학 졸업생은 고등학교를 1990-95년에 입학한 사람들인데, <부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시기에는 강원과 전남, 경북 지역에는 평준화제도를 시행하는 도시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13) 복수의 학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 부산, 대구 지역의 경우 개별 고등학교가 어느 학군에 소속되었는지는 당시의 각 지역별 고등학교 학군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여 판별하였다.

14) 여기서 유명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로 정의하였다. 독립변수에 무응답이 있을 때 더미변수일 경우 해당변수의 값을 0으로 그리고 연속변수일 경우 평균값으로 대체한 뒤, 해당 변수의 값이 무응답인지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를 만들어 추가로

되어 있다.

〈표 3〉 변수에 대한 정의

변수명	변수에 대한 정의
Wage	현 직장의 세전 총 연간소득 (단위: 만원)
Male	남자 = 1, 여자 = 0
Age	만연령
WorkHour	입사 첫 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
FamousUniv	상위 6개 대학 출신 = 1, 그 외 = 0
UnivScore	졸업 학점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
MADegree	석사과정을 다녔던 적인 있는 경우 = 1, 그 외 = 0
IQ	고등학교 재학 당시 IQ
DadCollege	아버지의 최종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 = 1, 그 외 = 0
RegularJob	종사상지위가 고용주이거나 상용직 (근무형태가 정규직) 인 경우 = 1, 그 외 = 0
LargeFirm	직장 종사자수가 300인 이상 = 1, 그 외 = 0
JobSeoul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서울 = 1, 그 외 = 0
HighPosition	직급이 과장급 이상 = 1, 그 외 = 0

〈표 4〉는 이들 변수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값을 졸업 연령별로 그리고 명문고 졸업 여부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표를 보면 우선 명문고 졸업생은 비명문고 졸업생에 비해 1992년 졸업생의 경우 11.5%, 2002년 졸업생의 경우 12.9%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특성이나 직장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역시 명문고와 비명문고 졸업생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들이 발견된다. 1992년 졸업생과 2002년 졸업생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명문고 졸업생이 비명문고 졸업생에 비해 유명 대학을 졸업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아버지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직장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대체로 명문고 졸업자의 임금이 비명문고 졸업자에 비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 외에도 고등학교 입학시기와 학군에 관한 고정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명문고 졸업생과 비명문고 졸업생 간의 임금격차가 유의한 수준을 유지하는지를 다음 절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통제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표 4〉 변수들의 평균값

변 수	1992년졸업생				2002년졸업생			
	명문고		비명문고		명문고		비명문고	
	Mean	Std.	Mean	Std.	Mean	Std.	Mean	Std.
Wage	5714	4249	5124	2307	3941	3493	3488	1432
Male	0.710	0.455	0.763	0.426	0.670	0.472	0.663	0.473
Age	41.7	1.7	41.7	1.6	31.8	1.6	32.1	1.7
WorkHour	46.7	15.1	48.5	13.4	48.0	13.3	46.8	12.3
FamousUniv	0.135	0.343	0.118	0.323	0.217	0.414	0.120	0.325
UnivScore	7.8	1.4	7.8	1.4	7.8	1.4	7.9	1.0
MADegree	0.275	0.448	0.275	0.447	0.313	0.466	0.234	0.424
IQ	121.8	11.6	122.9	10.4	126.4	9.2	125.5	9.6
DadCollege	0.348	0.477	0.305	0.461	0.409	0.494	0.365	0.482
RegularJob	0.807	0.396	0.870	0.336	0.852	0.356	0.837	0.370
LargeFirm	0.517	0.501	0.464	0.499	0.470	0.501	0.477	0.500
JobSeoul	0.329	0.471	0.289	0.454	0.522	0.502	0.389	0.488
HighPosition	0.377	0.486	0.470	0.499	0.183	0.388	0.163	0.370
관측치 수	207		771		115		661	

주: 여기서 명문고는 'FamousHigh_123' 기준임.

IV. 실증분석 결과

1. 회귀분석 결과

우선 1992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정리한 〈표 5〉를 보자. 분석은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각 모델은 표에서 제시된 변수 외에 고등학교 졸업연도에 대한 5개의 더미변수와 고등학교가 소속된 학군에 관한 34개의 더미변수를 추가로 통제하였다.¹⁵⁾ 표를 보면 남자의 경우 명문고 졸업의 임금효과가 뚜렷이 확인되고 있다. 고교평준화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서울대 진학생이 100명 이상이었던 고등학교 (FamousHigh_1) 그리고 20인 이상이었던 고등학교

15)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 입학시기는 1980-85년 6개년으로 한정하였고, 각 지역별 학군 수는 총 35개였다(2002년 졸업생의 경우는 평준화가 해제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학군 수는 총 28개임).

(FamousHigh_2) 졸업자는, 비명문고 졸업자에 비해 학군을 통제하더라도 12-18% 정도의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그 외 지방 소도시 명문 공립 고등학교 (FamousHigh_3) 졸업자는 비명문고 졸업자에 비해 임금이 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자의 경우에는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 이전 유명 대학 진학생이 많은 고등학교와 지방 소도시 공립 고등학교를 하나로 묶어 명문고 변수를 (FamousHigh_123) 만들었는데, 표를 보면 이 변수의 계수가 플러스의 값을 보이긴 하지만 10%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6) 17)}

2002년 졸업생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표 6>을 보면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떠한 명문고 변수이든, 비명문고에 비해 명문고 졸업생의 임금이 유의하게 높은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앞서 <표 4>에서 단순한 임금의 평균치로 보면 2002년 졸업생의 경우에도 명문고 졸업자가 비명문고 졸업자에 비해 임금이 12.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등학교 입학시기와 학군 등을 통제할 경우 이러한 임금 프리미엄은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고교평준화 제도가 실시됨으로써 동일 학군 내에 소속되어 있는 고등학교 간에는 과거 기준의 명문고에 진학하는 학생이 비명문고에 진학하는 학생에 비해 능력이 보다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보다 양호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2년 졸업생의 경우 명문고 졸업자는 비명문고 졸업자에 비해 (대학을 졸업한지 17년이 지난 2009년 시점에서) 12-18% 가량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 이

16) 그 외 다른 변수들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느 모델에서나 노동시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이나 가정환경 특성과 관련된 변수 중에는 유명 대학 출신인지 여부와 대학 재학 시 학점 변수가, 남자의 경우 임금에 유의한 플러스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석사과정에 취학했는지 여부나 IQ 변수, 그리고 아버지의 학력 변수는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IQ 변수의 경우 고등학교 학군을 통제하기 전에는 유의한 플러스의 값을 나타내지만, 학군을 통제하면 유의성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직장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대체로 기대했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일수록, 대기업에 취업해 있을수록, 서울 소재 직장에 다니고 있을수록, 과장급 이상의 직급에 종사하고 있을수록 임금은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2002년 졸업생을 분석하고 있는 <표 6>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17)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입학시기에 관한 더미변수들은 어느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입학시기가 다르고 이에 따라 연령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연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사이에는 유의한 임금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러한 현상이 나타났을까?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의 설명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 고등학교 입학 단계에서는 동일한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도 명문고에 진학하면 비명문고에 진학하는 것보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능력이 보다 많이 향상되었을 수 있다. 기존 명문고는 비명문고에 비해 우수한 교사들이 많이 존재하였고 시설이 보다 양호하였는데, 평준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러한 차이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 성과가 다르게 나타났을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고등학교 졸업 단계까지도 인적능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명문고 졸업자가 비명문고 졸업자에 비해 보다 우수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선배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성과가 높아지게 되었을 수 있다.

물론 첫 번째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명문고들 중 공립학교가 많은데 이 경우 교사들이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명문고라고 해서 보다 우수한 교사가 많지 않다는 점, 고교평준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고등학교 간의 차별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 특히 다음 장의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명문고 졸업자와 비명문고 졸업자 간의 유명 대학 진학률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명문고 진학자가 비명문고 진학자에 비해 고등학교 재학 시 보다 능력이 향상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명문고 졸업자가 비명문고 졸업자에 비해 높은 임금 프리미엄을 얻는 것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의 인적자본 축적 정도의 차이로는 설명되기 어려우며, 결국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명문고 졸업생이 갖는 유리함, 즉 우수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선배가 많다는 보다 양질의 사회적 자본량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⁸⁾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한 심사자가 잘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명문고 졸업자의 임금 프리미엄이 인적자본량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명문고 입학자들이 비명문고 진학자들에 비해 학교의 전통에 대한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가능성, 특히 서울의 경우 기존 주요 명문고들이 강남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보다 가정형편이 좋은 우수한 입학생들이 진학하였을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5〉 회귀분석 결과: 1992년 졸업생

설명변수	남자			여자		
	(1)	(2)	(3)	(4)	(5)	(6)
FamousHigh_1	0.153** (0.074)	0.177** (0.073)	0.158** (0.068)			
FamousHigh_2	0.127** (0.059)	0.120** (0.058)	0.156*** (0.055)			
FamousHigh_3	-0.066 (0.105)	-0.089 (0.103)	-0.097 (0.096)			
FamousHigh_123				0.098 (0.097)	0.090 (0.098)	0.124 (0.091)
WorkHour	0.008*** (0.001)	0.008*** (0.001)	0.007*** (0.001)	0.029*** (0.003)	0.029*** (0.003)	0.017*** (0.003)
FamousUniv		0.248*** (0.055)	0.192*** (0.051)		0.174 (0.123)	0.204* (0.122)
UnivScore		0.079*** (0.019)	0.044** (0.018)		0.036 (0.042)	0.020 (0.040)
MADegree		-0.040 (0.039)	-0.011 (0.037)		0.100 (0.087)	0.113 (0.081)
IQ		0.002 (0.002)	0.001 (0.001)		0.003 (0.004)	0.003 (0.004)
DadCollege		0.078* (0.041)	0.051 (0.038)		-0.008 (0.089)	0.067 (0.084)
RegularJob			0.332*** (0.056)			0.586*** (0.104)
LargeFirm			0.141*** (0.033)			0.116 (0.081)
JobSeoul			0.096*** (0.036)			-0.144 (0.111)
HighPosition			0.099*** (0.035)			0.078 (0.121)
Constant	8.066*** (0.122)	7.184*** (0.262)	7.174*** (0.244)	6.571*** (0.595)	5.817*** (0.861)	6.490*** (0.809)
표본 수	735	735	735	243	243	243
R ²	0.1081	0.1593	0.2787	0.4563	0.4746	0.5567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는 10% 수준에서, **는 5% 수준에서,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모든 모델에서 여기에 제시된 변수 외에 고등학교 졸업연도에 대한 5개의 더미변수와 고등학교가 소속된 학군에 관한 34개의 더미변수를 추가로 통제하였음. 또한 각 독립변수가 무응답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들도 통제하였음.

〈표 6〉 회귀분석 결과: 2002년 졸업생

설명변수	남자			여자		
	(1)	(2)	(3)	(4)	(5)	(6)
FamousHigh_1	-0.028 (0.089)	0.004 (0.087)	0.033 (0.082)			
FamousHigh_2	0.100 (0.062)	0.086 (0.061)	0.083 (0.058)			
FamousHigh_3	0.064 (0.215)	0.027 (0.210)	-0.039 (0.197)			
FamousHigh_123				0.039 (0.075)	0.048 (0.076)	-0.017 (0.072)
WorkHour	0.008*** (0.002)	0.008*** (0.001)	0.007*** (0.001)	0.012*** (0.002)	0.012*** (0.002)	0.008*** (0.002)
FamousUniv		0.206*** (0.049)	0.142*** (0.047)		0.162* (0.095)	0.105 (0.089)
UnivScore		0.071*** (0.020)	0.060*** (0.019)		0.036 (0.033)	0.017 (0.031)
MADegree		-0.063 (0.040)	-0.040 (0.038)		0.064 (0.056)	0.089* (0.052)
IQ		0.002 (0.002)	0.002 (0.002)		0.004 (0.003)	0.005* (0.003)
DadCollege		0.119*** (0.041)	0.095** (0.039)		0.018 (0.055)	0.008 (0.051)
RegularJob			0.249*** (0.052)			0.255*** (0.056)
LargeFirm			0.157*** (0.033)			0.126*** (0.048)
JobSeoul			0.097*** (0.036)			0.045 (0.051)
HighPosition			0.111*** (0.039)			0.225** (0.102)
Constant	7.775*** (0.127)	6.842*** (0.293)	6.687*** (0.277)	6.873*** (0.285)	5.852*** (0.517)	5.772*** (0.485)
표본 수	515	515	515	261	261	261
R ²	0.1723	0.2388	0.3342	0.2913	0.3286	0.4308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는 10% 수준에서, **는 5% 수준에서,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모든 모델에서 여기에 제시된 변수 외에 고등학교 졸업연도에 대한 5개의 더미변수와 고등학교가 소속된 학군에 관한 27개의 더미변수를 추가로 통제하였음. 또한 각 독립변수가 무응답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들도 통제하였음.

1992년 졸업생과는 달리 2002년 졸업생의 경우 명문고의 임금 프리미엄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역시 같은 논리의 연장선 상에서 설명될 수 있다. 고교평준화 제도가 1974-1980년 사이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1980-85년 사이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1992년 졸업생의 경우에는 고교평준화 이전 단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였던 선배들과 연령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따라서 이들과 인적 교류를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990-95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2002년 졸업생의 경우에는 고교평준화 이전 세대와는 10-20년 이상의 격차가 나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웠을 수 있다. 따라서 고교평준화 이전 세대에 우수한 졸업생을 다수 배출하였던 명문고의 인적 네트워크 효과는 고교평준화 제도 시행 직후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그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소멸해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⁹⁾

만약 이러한 가설이 타당하다면 1992년 졸업생에게서 나타나는 명문고의 임금 효과는 저임금 계층에 보다는 과거 명문고 졸업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고임금 계층에서 주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1992년 졸업생과 2002년 졸업생에 대해 quanti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 다음 <표 7>이다. 표를 보면 1992년 졸업생 남자의 경우 명문고의 효과는 상위 임금계층인 0.9 quantile 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이러한 현상은 명문고의 임금 효과가 이들 고등학교의 선배 중에 최고 임금계층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몇 가지 점검

한국의 고교평준화 제도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학군 내에서 무작위 추첨에 의해 고등학교를 배정하기 때문에, 기존 명문고와 비명문고 사이에 입학 자원의 질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 하지만 2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실제 고등학교 배정 시 교통편의가 고려되기 때문에 명문고가 비명문고에 비해 예를 들어 부유한 지역에 위치하고

19) 물론 2002년 졸업생의 경우 대학을 졸업한 지 7년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명문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네트워크 효과가 경력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졸업연도 코호트에 대한 시계열적 추세 분석이 요청되는데, 이는 추후의 작업과제로 돌린다.

20) 2002년 졸업생의 경우에는 어떠한 계층에도 명문고의 임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 이로 인해 명문고 입학생이 평균적으로 우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한 학군에 2-3개의 행정구역(구)이 모여 있을 정도로 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학군에 속하는 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입학생의 질 상에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표 7〉 Quantile Regression 결과

		설명변수	(1) q10	(2) q30	(3) q50	(4) q70	(5) q90
1992년 졸업자	남자	FamousHigh_1	0.073 (0.110)	0.030 (0.079)	0.099 (0.082)	0.105 (0.100)	0.404** (0.173)
		FamousHigh_2	0.079 (0.103)	0.042 (0.071)	0.098 (0.071)	0.081 (0.091)	0.330* (0.170)
		FamousHigh_3	-0.079 (0.094)	0.016 (0.086)	-0.052 (0.083)	-0.132 (0.111)	-0.038 (0.188)
	여자	FamousHigh_123	0.087 (0.127)	0.148 (0.092)	0.095 (0.086)	0.052 (0.097)	0.063 (0.110)
2002년 졸업자	남자	FamousHigh_1	-0.219 (0.232)	-0.021 (0.107)	0.034 (0.100)	0.053 (0.110)	-0.011 (0.161)
		FamousHigh_2	0.115 (0.105)	-0.040 (0.081)	0.025 (0.064)	0.038 (0.068)	0.145 (0.114)
		FamousHigh_3	0.122 (0.268)	0.000 (0.215)	-0.066 (0.154)	-0.170 (0.151)	-0.283 (0.204)
	여자	FamousHigh_123	-0.059 (0.129)	-0.067 (0.124)	0.024 (0.130)	0.098 (0.106)	0.054 (0.108)

주: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표 5〉와 〈표 6〉의 모델 (3)과 모델 (6)의 경우와 동일함.

명문고와 비명문고 사이에 발생하는 임금격차가 입학자원의 질과는 무관한 순수한 차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²¹⁾

첫 번째로는 학군을 보다 좁게 정의해서 앞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학군보다 적은 규모로 정의되는 행정구역(구) SDistrict_2를 통제하는 방법과, 만약 하

21) 여기서는 명문고 졸업의 유의한 임금 효과가 확인되는 1992년 졸업생에 대해서만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2002년 졸업생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학군을 통제하더라도 명문고 여부는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혀둔다.

나의 행정구역이 두 개 이상의 학군에 걸쳐 있을 경우 이들 각각을 독립된 학군으로 간주하는 SDistrict_3를 통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²²⁾ 이 결과를 정리한 다음 <표 8>을 보면 학군을 보다 좁혀 자세히 통제할 경우 계수값이 적어지면서 유의성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명문고의 임금효과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특히 FamousHigh_1의 경우에는 12-15%의 유의한 임금효과를 대부분의 모델에서 보여준다.²³⁾

<표 8> 학군을 자세히 통제하였을 때의 분석 결과

	설명변수	남자			여자		
		(1)	(2)	(3)	(4)	(5)	(6)
ID2 통제시	FamousHigh_1	0.139* (0.083)	0.151* (0.081)	0.142* (0.075)			
	FamousHigh_2	0.102 (0.069)	0.083 (0.068)	0.121* (0.063)			
	FamousHigh_3	-0.059 (0.113)	-0.088 (0.111)	-0.066 (0.103)			
	FamousHigh_123				0.060 (0.120)	0.061 (0.122)	0.069 (0.115)
ID3 통제시	FamousHigh_1	0.122 (0.083)	0.135* (0.082)	0.130* (0.076)			
	FamousHigh_2	0.035 (0.074)	0.013 (0.073)	0.061 (0.068)			
	FamousHigh_3	-0.067 (0.113)	-0.096 (0.111)	-0.074 (0.103)			
	FamousHigh_123				-0.007 (0.130)	-0.002 (0.133)	-0.094 (0.122)

주: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표 5>와 <표 6>의 모델들과 동일함.

22) 1992년 졸업생의 경우 원래 학군은 총 35개인 반면 SDistrict_2는 83개, SDistrict_3는 102개의 값을 가진다.

23) 학군을 자세히 통제할 경우 계수값이 감소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본 논문 분석 결과를 좀더 신중하게 해석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주요한 이유는 학군을 세분화할 경우 같은 세부 학군 셀 내에 명문고와 비명문고가 동시에 존재하여 비교 대상이 되는 표본수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ID3를 통제할 경우 남자는 전체 735개 표본 중 354개 표본이 세부 학군 내 명문고 졸업생만 존재하거나 혹은 비명문고 졸업생만 존재하여, 실제 명문고의 임금 효과를 분석하는 데는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비교적 소규모 표본을 사용한 분석이 가지는 한계라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는 명문고 졸업자들이 비명문고 졸업자에 비해 유명 대학 진학률이 높은지를 직접접적으로 테스트해 보았다. 만약 동일한 학군 내에서도 명문고에 진학하는 학생이 비명문고에 진학하는 학생에 비해 보다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보다 가정형편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면, 혹은 명문고에 진학할 경우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보다 크다면, 유명 대학 진학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에서 명문고 관련 변수는 유의한 플러스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유명 대학 진학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Probit 회귀분석을 실시한 뒤, 각 독립변수의 한계효과를 구해 정리한 것이 다음 <표 9>이다. 표를 보면 남자이든 여자이든, 추가적인 인적속성 변수들을 통제하든 그렇지 않든, 명문고 관련 변수들은 유명 대학 진학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⁴⁾

<표 9> 유명 대학 진학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의 분석 결과
(Probit 분석의 한계효과)

설명변수	남자		여자	
	(1)	(2)	(3)	(4)
FamousHigh_1	-0.055 (0.042)	-0.050 (0.043)		
FamousHigh_2	0.041 (0.053)	0.045 (0.053)		
FamousHigh_3	-0.001 (0.090)	0.004 (0.091)		
FamousHigh_123			0.004 (0.082)	0.001 (0.080)
IQ		0.003** (0.001)		0.008** (0.004)
DadCollege		0.019 (0.033)		0.254*** (0.082)
표본 수	581	581	164	164

주: 모든 회귀분석에서 고등학교 입학시기와 학군에 관한 고정효과 및 각 독립변수가 무응답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들을 통제하였음.

24) IQ는 유명 대학 진학 여부에는 유의한 플러스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도 유명 대학 진학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IQ와 아버지 학력과 같은 인적속성 변수들이 명문고 진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학군을 통제한 상태에서 명문고 졸업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이들 인적속성 변수들이 유의한 값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표 10>을 보면 남자의 경우 FamousHigh_12를 종속변수로 하든 FamousHigh_123을 종속변수로 하든, 그리고 여자의 경우 FamousHigh_123을 종속변수할 때, IQ와 아버지 학력 변수는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못하였다.²⁵⁾ 이는 IQ가 높거나 부모의 학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명문고 진학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동일한 학군 내에서 명문고와 비명문고 진학생 사이에 인적속성 상의 체계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해 준다.

<표 10> 명문고 진학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의 분석 결과
(Probit 분석의 한계효과)

설명변수	남자		여자
	종속변수 FamousHigh_12	종속변수 FamousHigh_123	종속변수 FamousHigh_123
	(1)	(2)	(3)
IQ	-0.002 (0.002)	-0.002 (0.002)	-0.002 (0.004)
DadCollege	0.059 (0.051)	0.056 (0.047)	0.060 (0.088)
표본 수	491	583	168

주: 모든 회귀분석에서 고등학교 입학시기와 학군에 관한 고정효과 및 각 독립변수가 무응답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들을 통제하였음.

V. 맺음말

고교평준화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명문고에 진학했던 사람은 비 명문고에 진학했던 사람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높은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

25) 여기서 FamousHigh_12는 FamousHigh_1이 1이거나 FamousHigh_2가 1인 경우, 즉 서울대 학교 입학자 수가 20명 이상인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다. 이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직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고임금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보다 우수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선배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양질의 사회적 자본이, 노동시장에서 유의한 임금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실시로 고등학교 간 차별성은 크게 약화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비평준화 지역과 특수형태 고등학교 부문을 중심으로 명문고가 존재한다. 평준화지역 내에서도 서울의 강남지역처럼 부유한 계층이 집중됨으로써 다른 학군에 비해 학생들의 질이 높아지는 차별성이 발생하기도 하고, 학교 선택권이 확대됨으로써 고등학교 간 편차가 강화되기도 한다. 대학의 경우 ‘명문대’의 문제는 보다 심하다. 과거 고교평준화 이전 시기의 고등학교처럼 현재 대학은 극히 서열화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명문’ 학교들에는 우수한 자원이 집중되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인적자본이 크게 향상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높은 임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적자본의 효과가 아니라, 우수한 선배가 존재하여 이들과의 네트워킹 효과로 인해 명문 학교 졸업생들의 임금이 높아지는 측면 또한 실제 존재할 수 있음을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보여준다.

하지만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이 논문에서는 1992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명문고의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현상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또한 이와 같은 임금 프리미엄이 보다 우수한 ‘사회적 자본’만의 효과인지도 아직은 가설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고교평준화 제도를 통해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무작위적으로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명문고의 임금 프리미엄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 효과가 주요한 요인일 것이라 추론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제도 하에서도 명문고가 가지는 유리함이 존재하거나 보다 우수한 자원이 명문고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았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또한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가 대표본이 아니며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특히 여성의 경우 본인의 임금만을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은 분석 자료 상의 구조적 한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한국의 고교평준화 제도라는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시도하였고, 일정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본 논문의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는 후속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1. 김선업, “한국사회 연줄망의 구조적 특성,” 『한국사회학』, 제26집 여름호, 1993, pp.1-33.
(Translated in English) Kim, Sun-Up, “An Empirical Study of Personal Network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26, No. SM, 1993, pp.1-33.
2. 김태준 · 최상덕 · 장근영 · 이기홍,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9.
(Translated in English) Kim, Tae-Jun, Kun-Young Chang, Sang-Duk Choi and Gihong Yi, *Analysis on Social Capital in Korea*,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9.
3. 박숙경, “중등학교 수준에서의 학교 선택권 보장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Translated in English) Park, Suk-kyung, “A Study on the School Choice Policy: the Case of Secondary School,” Kyungnam University Dissertation Thesis, 1997.
4. 최셋별, “한국사회의 명문고교의 변천과 상류계층 남성과 여성의 학연,” 2001년 한국사회학회 전기 사회학대회 발표논문, 2001.
(Translated in English) Choi, Set-Byol, “The Changes of Korean Renowned High Schools and Academic Cliques(Hakyun) of Korean High-class Males and Female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Sociology held by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01.
5. Bartus, T., “Social Capital and Earnings Inequalities: The Role of Informal Job Search in Hungary,” Groningen University Dissertation Thesis, 2001, <http://dissertations.ub.rug.nl/faculties/gmw/2001/t.bartus/>
6. Bayer, P., S. Ross and G. Topa, “Place of Work and Place of Residence: Informal Hiring Networks and Labor Market Outcomes,” *NBER Working Paper* No. 11019, 2005.
7. Cahuc, P. and F. Fontaine, “On the Efficiency of Job Search with Social Networks,” *Journal of Public Economic Theory*, Vol. 11, No. 3, 2009, pp.411-439.
8. Calvo-Armengol, A. and Y. Zenou, “Job Matching, Social Network and Word-of-Mouth Communication,” *Journal of Urban Economics*, Vol. 57, No. 3, 2005, pp.500-522.
9. Delattre, E. and M. Sabatier, “Social Capital and Wages: An Econometric Evaluation of Social Networking's Effects,” *Labour*, Vol. 21, No. 2, 2007, pp.209-236.

10. Flap, H.D. and E. Boxman, "Getting Started: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the Start of the Occupational Career,"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ed. Lin, N., Cook, K.S., and Burt, R., New York, 2001.
11. Lai, G., N. Lin and S.Y. Leung, "Network Resources, Contact Resources, and Status Attainment," *Social Networks*, Vol. 20, No. 2, 1998, pp.159-178.
12. Lee, S. and M.C. Brinton, "Elite Education and Social Capital: The Case of South Korea," *Sociology of Education*, Vol. 69, No. 3, 1996, pp.177-192.
13. Lee, S. and C. Kang, "Labor Market Effects of School Ties: Evidence from Graduates of Leveled High Schools in South Korea," mimeo, 2011.
14. Montgomery, J.D., "Social Networks and Labor Market Outcomes: Toward an Economic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1, No. 5, 1991, pp.1408-1418.
15. _____, "Job Search and Network Composition: Implications of the Strength-of-Weak-Ties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7, No. 5, 1992, pp.586-596.
16. Mouw, T., "Social Capital and Finding a Job: Do Contacts Matter?" *American Sociology Review*, Vol. 68, No. 6, 2003, pp.868-898.
17. Nam, K. and K. Sung, "Are Private Schools More Effective than Public Schools?: Experi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in Korea,"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32, No. 3, 2009, pp.91-121.
18. Xue, L., "Social Capital and Wages: Outcome of Recent Immigrants to Canad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2008, <http://www.clsrn.econ.ubc.ca/events/pdf/Li%20Xue.pdf>
19. Zweigenhaft, R.L., "The Application of Cultural and Social Capital: A Study of the 25th Year Reunion Entries of Prep School and Public School Graduates of Yale College," *Higher Education*, Vol. 23, No. 2, 1992, pp.311-320.
20. _____, "Prep School and Public School Graduates of Harvard: A Longitudinal Study of the Accumulation of Social and Cultural Capital,"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 64, No. 2, 1993, pp.211-225.
21. _____, "Prep School and Public School Graduates: Who Attends College Reunions, Who Donates, Who Doesn't, and Why," *Sociological Spectrum*, Vol. 29, No. 6, 2009, pp.742-750.

〈부표 1〉 고교평준화 정책 실시 이후 고등학교 학군의 변화 (1990년대까지)

지역	학군의 변화
서울	1974-76. 1개의 공동학군과 5개의 일반학군
	1977. 공동학군의 축소(도심 반경 3km 이내), 6개의 일반 학군
	1978-79. 공동학군의 축소(도심 반경 2km 이내), 9개의 일반 학군
	1980-98. 공동학군 폐지. 9개의 일반 학군
	1999- 11개 학군으로 조정
부산	1974-75. 1개의 공동학군과 2개의 일반 학군
	1976-79. 공동학군 폐지, 3개의 일반 학군
	1980- 4개의 일반 학군
	1975-79. 최초에는 단일 학군
대구	1980-81. 2개의 일반 학군
	1982-89. 4개의 일반 학군
	1990- 3개의 일반 학군
	1975- 단일 학군
	1979- 단일 학군
대전, 인천, 광주,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	1991. 제주 평준화 해제
	1980- 단일 학군
	1990-91 원주, 군산, 이리, 목포, 안동 평준화 해제
	1995 친안 평준화 해제
	1981- 마산에서 분리, 단일 학군

주: 1996년 이후 선복수지원 정책이 시행되었음.

자료: 당시 지역 신문 및 각종 지역 교육사 관련 자료.

〈부표 2〉 고등학교별 서울대학교 합격자 수 (1972-75년)

서울					지방 및 여학교				
고등학교명	1972	1973	1974	1975	고등학교명	1972	1973	1974	1975
경기고	330		402	512	부산고	141		164	166
경동고		131	80	51	경남고	173		167	159
경복고	212		204	232	경북고	112		146	152
대광고		42		30	경북사대부고	24			
동성고		33			체물포고	83	76		77
배재고		47		45	광주일고	113	68	116	125
보성고		46		47	광주고	27			
서울고	248	268	261	435	대전고	100	98	96	55
서울사대부고		35	60		춘천고	10	22		
신일고	62	65		67	청주고	18			35
양정고		26		33	전주고	83	71	77	64
용산고		125	112	130	마산고	26			
중앙고	85	119	93	96	진주고	24			
충동고	45	37		32	경기여고	118	126	147	129
휘문고		56		87	숙명여고		38		27
					이화여고	85	91	88	102
					정신여고		38		25

자료: 동아일보, 1972. 2. 7., 경향신문, 1973. 1. 30., 동아일보, 1974. 3. 9., 경향신문, 1975. 1. 27.

〈부표 3〉 여자고등학교의 대학교 합격자 수 (1973년)

고등학교명	서울				고등학교명	지방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계성여고	4	9	17	44	30	8	9		5
금관여고	3	5	9	37	38	11	8		5
동덕여고	4	7	10	28	42	6			6
무학여고		13	9	28		1		22	8
배화여고	3	4		59		9	23		5
상신여고			7	17	39	2	34	19	6
수도여고	5	6	9		35				
송의여고	2	10	13	16	52				
이대부고	1	5	3	48	1				
중앙여고	5	7	2	53	45				
진명여고		9	5		4				
창덕여고		23	15		21				
풍문여고	6	10	19	45	43				

자료: 경향신문, 1973. 1. 30.

Do Renowned-High-School Graduates Receive Higher Wage?

Kigon Nam*

Abstract

Graduates from renowned high school can get advantages in the labor market, because they may have social networks with high-positioned seniors. To analyze the question whether the graduation from renowned high school makes the causal effect on the labor market wage, this paper uses the unique historical experience as it is called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in Korea. The Education-Labor Market Lifecycle Data investigated by KRIVE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s used in this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graduates from renowned high school receive higher wage, even though all the students have been randomly allocated to individual high schools after equalization policy period. Especially to graduates jus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equalization policy, and to graduates receiving higher wage, the renowned high school effect shows more marked. This fact reveals that the significant wage premium can be acquired by the social capital owing to the graduation from the renowned high school.

Key Words: renowned high school, wage,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Received: Jan. 2, 2012. Revised: Jan. 15, 2012. Accepted: Feb. 19, 2012.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Hanbat National University, 16-1, Dukmyung-dong, Yuseong-gu, Daejeon 305-719, Korea, Phone: +82-42-821-1305, e-mail: nkgon@hanbat.ac.kr